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일자리 발표후에 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준 파월 의장에게 '금리 1% 인하'를 촉구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5월 미 일자리, 완만한 성장
- Reuters: 연준, 금리 인하 서둘지 않아...고용 둔화 불구
- CNNBusiness: 관세 불구하고 5월 자동차 가격 변동 없어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가격 하락...강한 일자리 보고서로 금리 가능성 줄어

[트럼프 정책]

- WSJ: 연방 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외국인 등록 금지 막았다

[무역 전쟁]

- CNBC: 미중 정상 통화, 아직 희토류 문제 해결 못 해
- Bloomberg: 미국과 일본, 차량과 희토류 등 최종 단계 관세 회담 시작

[오일]

- Bloomberg: 유가 65달러선 유지...시장 변동성 완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들, 고객의 매장 체류 시간 늘리기 전략 강화
- WSJ: '미국 의류 브랜드들 까다로운 고객이 되고 있다'
- CNBC: 월마트, 5개 주로 드론 배송 확대한다

[기업 가치 창출]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성장만이 답은 아니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s Report Points to Gradual Moderation in Labor Market'

5월 미 일자리, 완만한 성장

- 5월 미 일자리 성장이 완만했고 전월 4월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주시하면서 성장 전망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에 1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성장했다. 그 전 2개월간의 일자리는 도합 9만 9천 개가 하향 조정되었다. 실업률은 변동 없이 4.2%였으며 임금 성장은 가속화되었다.
- 이번 일자리 성장은 당초 시장 예상보다 다소 나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관세 관련 높은 비용과 경제 성장 둔화를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 수요의 급격한 감

소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수준이다.

Bloomberg 기사

Reuters: Fed seen in no rush to cut rates as US job market cools but doesn't crumble

연준, 금리 인하 서둘지 않아...고용 둔화 불구

- 오늘 발표된 연방정부의 일자리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둔화되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실업률도 4.2%로 변동이 없어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관련 9월까지는 관망 모드를 보이고 12월에 한차례 인하를 예상되는 것으로 단기금리 선물 거래는 보여주고 있다. 이 선물 거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3번째 단행할 경우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베팅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Reuters 기사

CNNBusiness: Car prices hold steady in May despite tariffs

관세 불구하고 5월 자동차 가격 변동 없어

-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차량 구매자들은 5월에 새 차 구입 비용이 오히려 약간 줄었다.
- 관련 조사 회사 Edmunds.com에 따르면 신차 구입비가 평균 \$48,334로 4월보다 0.2% 감소했다.
- 이같은 가격 수준은 관세로 인해 차량을 매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차량 가격이 이미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는 수요 약세와 소비자들이 관련 지출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 한편, 트럼프는 수입산 차량에 4월 3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했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거의 절반인 46%가 거의 외국산이다.

CNN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Drop as Strong Jobs Data Curb Bets on Fed Rate Cuts

국채 가격 하락...강한 일자리 보고서로 금리 가능성 줄어

- 오늘 금요일 미 일자리 성장과 임금 상승이 예상외로 발표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7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46%, 연준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도 7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3.99%에서 거래되고 있다.

- 그리고 금리 스왑 거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0.25% 금리 인하의 가능성 이 70%, 그리고 올해 2차례 금리 미만 이하 가능성 이미 반영된 상태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정책]

WSJ: Judge Blocks Trump's Ban on Foreign Students at Harvard 연방 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외국인 등록 금지 막았다

- 연방 법원은 트럼프가 외국인 학생의 하버드 대학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 하버드 대학은 소송 심리에서 트럼프의 금지 조치는 하버드 대학의 수정 헌법 1조를 시행하는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고 조치라고 말했다.
- 현재 하버드 대학과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 지원금과 외국인 학생 등록 관련 갈등을 벌이고 있다.

WSJ 기사

[무역전쟁]

CNBC: Long-awaited Trump-Xi call isn't enough to resolve looming critical mineral shortage this summer 미중 정상 통화, 아직 희토류 문제 해결 못 해

- 최근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세 문제에 대해 1시간 30분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상 간의 통화는 희토류 부족 현상에 대해 해결책을 아직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 기업들은 희토류 부족 때문에 올여름에 자동차와 또 다른 산업재 부품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현재 단지 일부 중국 공급업체들만이 미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수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Japan, US Start Tariff Talks Amid Reports on Cars, Rare Earths 미국과 일본, 차량과 희토류 등 최종 단계 관세 회담 시작

- 일본과 미국은 최종 단계의 관세 회담을 시작했다. 일본 대표단은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 생산과 희토류 관련 협력을 약속하면서 미 관세의 유예 조치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 현재 일본 수석 협상가인 Ryosei Akazawa와 미 상무장관의 관세 회담을 통해 비관세장벽, 무역 확대,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도 다가오는 G7 회의 기간 중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오늘]

Bloomberg: Oil Holds Near \$65 as Market Volatility Grinds to a Halt
유가 65달러선 유지...시장 변동성 완화

- 원유 가격이 3주 이상 배럴당 6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 긴장이 완화 됨에 따라 올해 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하며 첫 주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원유 선물의 변동성 지표는 4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이 수요를 위협하며 유가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에 대해 HSBC 애널리스트들은 “석유 수요가 여름에 증가하고 OPEC+의 공급 증가와 맞물리면서 2, 3분기 시장은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hop Slow, Spend More: The Retailers Hoping That Customers Linger
소매업체들, 고객의 매장 체류 시간 늘리기 전략 강화

- 소매업체들이 고객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해 소비를 늘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VIP 라운지나 카페를 넘어, 공간 구성과 고객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 캐나다 구스는 일부 매장에서 아우터의 보온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콜드 룸”을 운영하고, 캐나다 예술 작품과 편안한 좌석을 갖춘 VIP 라운지를 추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Coach 매장에서는 커피와 칵테일을 판매하고 맞춤 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렛 운영사 Tanger 은 중앙 잔디밭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의 편의시설과 야외 휴식 공간을 도입했다.
- 이러한 전략은 분위기 개선을 넘어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구스는 3개월간 약 3억 8,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의 증가율이다. 코치는 같은 기간 동안 13%의 성장을 기록했다.
- 15세~30세의 Z세대는 단순 구매보다 매장에서 브랜드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의 동선을 분석하고 매장 구조와 조명까지 조정하며 자연스럽게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WSJ 기사

WSJ: Why U.S. Apparel Brands Are Becoming Tough Customers
‘미국 의류 브랜드들 까다로운 고객이 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의류 브랜드들과 해외 공급업체 간 비용 분담을 둘러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노스페이스, 디키즈 등 여러 브랜드의 모회사인 VF는 공급업체에 3.5%의 비용 절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임금 삭감이나 근로자 보호 약화 등과 같은 방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장주들은 대부분의 해외 직물 공장과 의류 제조업체들이 3% 미만의 이윤을 남기고 운영된다고 말하며,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또한, 공장은 이미 노동 비용 상승, 환율 변동에 대한 요구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을 흡수하고 있어 관세 비용 분할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WSJ 기사

CNBC: Walmart plans to expand drone deliveries to three more states

월마트, 5개 주로 드론 배송 확대한다

- 월마트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 내 100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알파벳의 드론 자회사 윙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애틀랜타, 샬럿, 휴스턴, 올랜도, 탬파 등 5개 주의 주요 도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드론 배송은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총 5개 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매장에서 최대 6마일까지 배송이 가능해진다.
- 월마트의 드론 배송 서비스는 다양한 배송 옵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대 30분 이내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고객의 냉장고 안까지 배송해주는 구독형 서비스 인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방전 당일 배송 서비스도 시작하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다.
- 현재까지의 월마트 드론 배송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나, 월마트 COO는 2021년 이후 총 15만 건 이상의 드론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드론을 통한 유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기업 가치 창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Growth Isn't the Only Way for Companies to Create Value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성장만이 답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매출 성장을 기본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가 후퇴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어나며 소비자들의 구매가 더욱 신중해졌다.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의 성장은 동시에 차별화 원인이나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무리한 성장을 쫓는다면 기업의 자원을 낭비시켜 오히려 가치를 훼손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성장 없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HBR 기사

[보고서]**뉴욕증시, 트럼프-머스크 격돌에 하락...나스닥 0.8%↓
테슬라 14% 급락에 지수 동반 하락...트럼프-시진핑 통화 영향 희석**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관계가 파국으로 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8.00포인트(-0.25%) 내린 42,319.74에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